

지역 매 아리

유기상 고창군수, 농촌개발대학 특강

고창군 고창농촌개발대학이 지난 8일 오후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장인 유기상 군수를 초청해 '한국농업을 리더하는 고창농업의 도전과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발전의 동력은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있으며, 특히 농생명산업은 고창의 100년 먹거리를 만드는 데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고 강조했다.

민선 7기 고창군은 농장부서를 선임부서로 하는 행정조직 개편, 농기계 운송서비스 실시, 전북최초 농민수당 지원, 복분자 산업 활성화, 전국 지자체 최초 한반도 시농대제 추진 등 농생명 중심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은 천혜의 토양과 기후 등 농업환경이 뛰어나고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타이틀은 타 시군의 부러움의 대상이다"며 "국민의 농업에 대한 열정이 더해져 반드시 한반도 첫 수도의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고창농촌개발대학은 올해 15년째 운영하는 고창의 대표적 교육 프로그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정읍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행한다.

시는 추경예산에 14억4720만원을 확보해 9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중 건설기계(콘크리트펌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다.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와 함께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 후 LPG 화물차(1톤)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추경예산에 15대분 6천만원을 확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조기폐차사업과 함께 신청서를 받는다. 선정된 차량 소유주는 조기 폐차 보상금에 LPG 구매보조금 4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청 환경과(☎063-539-5713)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음용수 안전관리 '만전'

정읍시, 총대장군군 오염 민방위 비상급수 음용수 사용 금지 조치

정읍시가 음용수(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5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음용수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시는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9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읍사달남약수의 용혈약수, 제일아파트급수대, 현대3차아파트급수대, 내장산국립공원야영장급수대 5개 시설에서 총대장군군이 기준치(불검출/100ml) 이상 검출돼 음용수(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와 반대로 내장산국립약수와 수

상청약수, 삼화타운아파트급수대, 전북과학대학교비상급수시설 4개 시설은 음용수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음용수 부적합 시설 현장에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성적서를 비치하고 현수막 안내와 시 홈페이지 게시 등 음용수 사용 금지 조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렸다.

아울러 시설관리자와 읍면동, 실과소에 음용수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시민이 해당 지하수를 생수로 마시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음용수 부적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생활용수 용도로 지하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물탱크가 있는 정읍사달남약수의 경우 약품소독을 실시한 후 음용수로 공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음용수 안전관리를 위해 매분기(연 4회)마다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해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이 8일부터 10일까지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회 섬의 날 행사에 참가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을 위한 '섬 페스티벌'

부안군, 섬의 날 기념행사 참여해 짬버리 홍보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8일부터 10일까지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회 섬의 날 행사에 참가했다.

첫 섬의 날을 기념하는 축제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은 전국 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 형식으로 치러졌다.

행사의 세부내용으로는 홍보관에서 4년 연속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아름다운 섬 가우도를 소개하고, 가우도 짬버리 VR 무료체험과 가우도 관련 퀴즈쇼를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아이템으로 관광객의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부안군은 2023 새만금 짬버리 홍보 및 관내 섬 자원을 안내하고, 지역 특산물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섬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권익현 부안군수와 위도 주민들은 전시간, 민속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에 참가하여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앞장섰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섬의 날 행사서 무인도체험·명품 바지락 홍보

누구나 한 번쯤 무인도에 가는 꿈을 품다. 휴대전화도 안 되는 곳. 소나무 몇 그루 덩그러니 놓인 외딴 바위섬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 한다. 여기 고창군이 그 꿈을 실현시켜 준다.

고창군이 전남 목포시 삼학도에서 8~10일 동안 열리는 '제1회 전국 섬의 날 행사장'에서 무인도

체험 홍보부스를 운영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고창 관내에는 2개 섬(내죽도, 대죽도)이 있다. 이중 사람이 살지 않는 대죽도가 최근 무인도체험으로 뜨고 있다.

무인도 체험객은 고창군 만들개 별채체험장에서 안내를 받고 20여 분간 경운기를 타고 가면 자그마한 섬에 도착한다. 꽃게와 새우부

터 바지락, 주꾸미, 고동 등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천연의 자연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바닷물이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을 살펴야 한다. 자칫 별다른 준비 없이 '체험'만 하러 갔다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 섬 주변 갯벌과 바닷가에서 각종 수산물 채취는 허가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9일 의회 청사 앞에서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읍시의회, 일본 경제침략 규탄 결의대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 의원들은 지난 9일 의회 청사 앞에서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일본정부의 일방적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정읍시민과 함께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일본관광 자제 등 생활실천운동에 동참을 선언했다.

시의회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정읍시민은 국권을 침탈한 일제에 치열하게 맞서 싸운 동학농민혁명군의 후예로서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경제보복 조치의 철폐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본의 경제침략행위에 대하여 굳건히 싸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최낙삼 의장은 "일본 아베정부는 대한민국을 침탈한 과거사의 반성 없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하여 치졸하게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 독도영유권 주장 등 역사적·경제적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위험한 불법 주·정차 이제그만!

정읍시, 새암길 상점가 공영주차장 준공... 원도심 상권 활성화 기대

정읍시는 최근 '새암길 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끝내고 상점가 방문객과 주민을 위해 이달 내 본격 주차장 개장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원도심 상점가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주차장은 수성동 575-5번지 일원의 부지 1173㎡에 총사업비 21억2000만원(국비 11억2500만원, 시비 9억9400만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12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4월 사업을 착공해 총 37명의 규모로 조성됐으며 가로등과 방범용 CCTV도 함께 설치해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했다.

새암길 상점가는 의류 관련 특화 거리로 100여 개의 의류·잡화·푸드 등의 상점이 즐비해 있는 곳이다.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상권침체와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주차 몃살을 잃어오는 등 이용객과 상점 업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공영주차장 확보로 도로의 불법 주차난을 해소하며 이곳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깨끗하고 질서 있는 지역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새암길 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포함해 정읍시에 총 671면의 공영주차장 11곳을 갖추며 주민과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돕고 있다.

또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효율적이고 단련 있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해 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새암길 상점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소풍환경을 갖춰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상점가를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 cartoon character, and various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 ad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